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진행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김일성장군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3일 5월 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서 마련하여 주신 조중친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중국인민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일을 기념하는 우리 인민의 기쁨이 경기장에 넘쳐흐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주상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최봉해동지, 리태남동지, 김정각동지와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주석단편람식에 나왔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와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장 마효천, 총정치부 부주임 상장 동세평, 총장비부 부부장 상장 리안동, 총후근부 부부장 상장 진은하,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중앙 양홍요, 제남군구 부사령원 중앙 풍조기,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소장 조옥민,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 소장 진리화,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소장 주도,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단장인 중국인민해방군 전 공군사령원 왕해,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단장인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리국여,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주석단편람식에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회의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성원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동지들이 우리 인민군장병들, 인민들과 함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중친선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공동의 재부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친선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시작되

자 배경대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라는 글발이 새겨지고 경기장바닥에는 꽃바다, 춤바다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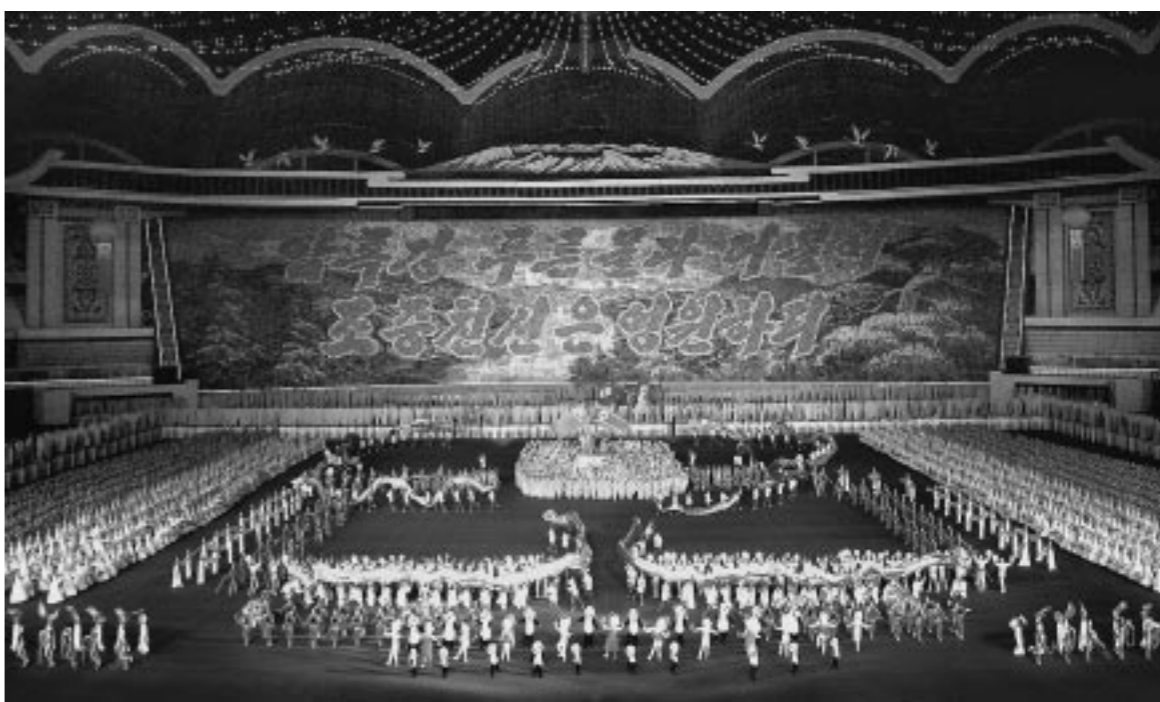
기념비적격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선군의 기치높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세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친선아리랑》장은 공연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였다.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부디깊은 조중친선》, 《조중친선은 세기를 이어》 등의 글

발들이 편이 새겨지고 두 나라 민족의 상을 한 출연자들이 중국의 민속무용과 친선춤을 펼쳐어 온 경기장이 조중친선의 정으로 뚫어 번지게 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중친선의 화원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세 세기에 더욱 활짝 피어나



고있음을 절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중친선의 화원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세 세기에 더욱 활짝 피어나

고있음을 절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는 23일 의례방문하여 온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리병철 조선인민군 대장들, 김명환 조선인민군 상장,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손연풍 대사관 국방무관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영호동지는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리병철 조선인민군 대장들, 김명환상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병,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영호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추진시켰으며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하여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성원들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손연풍 대사관 국방무관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영호동지는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리병철 조선인민군 대장들, 김명환상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병,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영호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추진시켰으며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세

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항전을 벌리는 과정에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뉴대가 더욱 강화되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시고 가꾸어오신 조중친선은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명도밑에 중국군대와 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을 강력한 부대로 무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박백웅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과 군대에 대한 중국인민과 군대의 두터운 정을 안고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행사에 참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부단히 공고발전되여온 두 나라사이

의 친선협조관계는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당대표자회와 조선인민과 군대가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목격하게 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의 변역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당대표자회와 성과적으로 진행되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60년전 증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가 어깨결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증조친선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표단이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동지들과 함께 생사여탈을 같이 한 우정에 대해 추억하고 새 세기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전망을 확신하게 된다 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평양 도착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3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표단은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상장 마효천, 총정치부 부주임 상장 동세평, 총장비부 부부장 상장 리안동, 총후근부 부부장 중

장 진은하,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중앙 왕홍요, 제남군구 부사령원 중앙 풍조기,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소장 조옥민,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 소장 진리화,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소장 주도 등을 비롯 장병, 군관들로 구성되어있다.

비행장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류홍

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손연풍 대사관 국방무관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의식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기념탑 앞에 정렬해있었다.

환영의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성원들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손연풍 대사관 국방무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영호동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리병철 조선인민군 대장들, 김명환상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병,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에 국가가 주악된 다음 리영호동지와 함께 박백웅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 를 사열하였다.

박백웅동지에게 녀성군인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녀성이 꽃다발을 드렸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에 국가가 주악된 다음 리영호동지와 함께 박백웅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 를 사열하였다.

박백웅동지에게 녀성군인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녀성이 꽃다발을 드렸다.

박백웅동지 평양도착서면 연설 발표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박백웅동지가 23일 연회장에서 평양도착서면 연설을 발표하였다.

서면연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은 조선인민과 군대에 대한 중국인민과 군대의 두터운 정을 안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친선적인 림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와서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공식친선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 기회에 나는 중국인민과 군대를 대표하여 조선인민과 군대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드린다.

순치의 판례를 가진 증조 두 나라의 친선적인 이웃이다.

렬강들의 침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속에서 두 나라 인민과 군대는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며 두터운 친선관계를 맺어왔다.

60년전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과 군대와 어깨결고 싸웠으며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북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을 겪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나는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과서 마련하시고 가꾸어오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것을 기쁜 마음으로 목격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호금도총서기동지와 상봉하시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공

동인식을 이룩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강동지가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하여 경축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변함없이 공고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내가 이번에 조선을 방문한것은 두 당, 두 나라 명도자들과서 이룩하신 공동인식을 실현하여 두 나라 인민과 군대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며 조선동지들과 함께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이다.

조중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하기를 축원한다.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미더운 축구선수들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주체적인 경기전법의 위력을 떨치며

선군조선의 체육인원 한없는 긍지를 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온 우리 선수들이 올해에 사격, 태권도, 권투, 럭비 등 세계와 아시아의 체육경기무대에서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데 이어 뜻깊은 10월에 또다시 자랑찬 축구 경기성과를 안아올렸다.

청년남자축구선수들이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선군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쳐주기 위하여 우리 축구발전의 장창한 미래를 보여주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자랑을 안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청년군민의 가슴마다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으며 필승의 정신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덥고 강한 선군조선의 아들들인가.

아직은 애를 채 벗지 못한 우리 선수들, 그가운데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팀의 첫

골을 기록한 장국철선수와 같이 국제경기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들도 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맞닥뜨린 상대팀들은 다육체적으로나 기술적수준에서 만만치 않은 팀들이었다. 어느 한 나라의 팀 책임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합리적인 판권 무엇보다 하여 우리 선수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후승리의 단상에 긍지 높고 울라치게 되였다.

조별리그전 두번째 경기에서 우리 팀에게 0:3으로 패한 후 이라크팀 책임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조선팀에게 정신적으로 패하였다.

또한 우리 팀의 경기전과정을 지켜본 한 외국인은 불리한 경기상황속에서도 순간의 추출도 없이 마치자라 말리는 조선 선수들의 완강한 자세를 칭찬한 인상을 받았다고 자기의 직동원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렇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정신력과 의지에서 상대팀들을 압도해준 승리의 봉우리로 치달아오른 우리 선수들이다.

우승을 노는 선수들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 후 우리 팀의 책임감독 윤정수동무는

선수들에게 말하였다.

«전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끊임없는 현지지도강령공로에서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을 위하여 더 완강하게, 더 본연있게 달려라.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날 밤 우리 팀의 공격수 7번 박성철선수는 일기장을 마주하였다. 조국에 있을 때에도 늘 펼쳐져 강도높은 훈련에서 나약했던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고마운 당의 은덕에 기어올라 오고 보았던 불타는 맹세도 새겨진 모란 일기장, 그 순결한 랑심의 거울에 선수는 자신을 비추어보았다. 앞의 경기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했고 승리의 신심을 배백로 다졌다.

이렇게 필승의 기상으로 심장을 더욱 활활 불태우며 나선 우리 감독, 선수들이었다.

은 나라가 크나큰 환희로 설레이던 지난 9월 30일 조국을 떠나서 만수대덕덕에 높이 오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들 다진 불타는 맹세,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 무비의 정신력과 필승의 의지와 경기마다에서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드세차게 벌린 사상전, 투지전열에 이라크, 바레인, 중국, 남조선 등 맞닥뜨리는 모든 팀들이 자기의 풀문을 열어서였다. 오스트랄리아와의 결승경기에 한참 떨어진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 고구려하며 오지 승리, 승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승리를 위해 달려가다 달려도 달려 끝내 우승의 환희를 리드했다.

우리 선수들이 거둔 혁혁한 성과의 비결의 하나는 사상정신적우월성에 대하여 애초부터 승도전, 기술전의 불길도 세차게 지켜볼런데 세대의 축구전문가들은 조선팀을 공격과 방어의 이행속도가 빠른 팀이라고 평하였다. 한편 우리 팀이 2:0으로 남조선팀을 대승한 결승경기과정을 두고 한 외인은 조선팀을 수많은 중국관중들의 응원 속에 강력한 방어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진술도 경기를 운영하였다. 짧은 전력과 좌우측면으로의 긴 전진을 배합하면서 남조선팀의 풀문을 위협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팀의 두차례 통쾌한 득점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북남조선의 축구팀이 올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마지막대결을 벌인것으로 하여 관심을 모은 이 경기에서 조선팀은 모든 면에서 남조선팀을 압도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하였다.

실로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키가 크고 육체적준비가 좋으며 콧다기기술이 높은 여러 팀들이 우리 팀의 전술에 달려들어 갈팡질팡하였으므로 그와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완강한 밀집방어에 기초하여 상대팀의 공격을 좌절시켰으며 일대일 공을 차지하면 즉시 공격전으로 넘어가 재치있는 패스기와 멋진 드리블, 강한 중앙 거러차넣기 등 높은 득점능력을 발휘하면서 가슴후련한 골장면들을 연속 펼쳐놓았다.

경기전간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책임감독은 경기지휘를 신속성있게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매번 3명의 선수를 교체해 주었다. 남조선팀과의 결승경기에 전반전에 교체해줄 때 후반에 두번째 골을 기록한 리혁철선수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경기형세를 주도세밀하게

분석판단하면서 시기적절한 때에 선수교대를 하곤 한 그의 경기지도는 팀의 진출적도도를 잘 살리면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이력땅에서의 근 20년간 조국의 명예를 걸머지고 당이 밝혀준 주체적인 경기전법으로 용맹하게 싸워 마침내 빛나는 승리의 단상에 우뚝 올라선 우리 선수들이다.

우리 팀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을뿐 아니라 매년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20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이번 성과를 통하여 우리 선수들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우리 식 경기전법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갈 때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승리한 오늘을 기세에 박자를 가하며 우리 감독, 선수들 모두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떨쳐나섰다.

청년남자축구선수들이여! 백두의 정기를 안은 선군조선의 발걸음과 더불어 휘황찬란 펼쳐진 승리의 한길에서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라.

영원한 태양의 빛과 함께 흐르는 선군조선의 위용과 필승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고 위대한 조국의 총진군에서 승리의 삶을 더욱 증진시켜 빛내리라!

본사기자 오철룡

김정숙 료양소에서

김정숙 료양소가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이 꽃피어나는 치료에방기지로 더욱 훌륭하게 전변되고있다.

치료실들과 건물개건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치료실비의 현대화와 치료의 과학화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료양소주변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주에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숲을 이루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이름은 곳마다에 있는 약산과 온천, 감탕과 같은 자연수단을 치료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김정숙 료양소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지난해 9월 료양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성온천은 효능이 높은 약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에 좋다고 하시면서 료양소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료양소들은 료양소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료에방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료양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일들을 위해 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무원회와 공동주조관찰을 위한 결의목표의 첫 조항에 반영되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꾼들이 한결 단위적 말고 과일을 내려가 앞장서고

대중을 이끌고있다. 료양소에 깃든 천출명왕의 불멸의 업적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는 예술소품공연들과 여러가지 모임들은 의료일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힘있게 하고있다.

치료실비의 현대화와 치료의 과학화는 의료일꾼들의 높은 실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료양소에서 기술학습의 남용을 비롯한 높은 의료일꾼들의 자질향상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일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확히 수행하게 하고있다.

광천연구실의 연구자들은 온천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광천치료를 적극 탐구리용하고 저주파 치료를 더욱 과학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천치료과와 감탕치료과의 의료일꾼들은 치료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환자들아 온천에 구워넣어 줄이 광천치료와 감탕치료를 총합된 반을 수 있게 하였다. 신명마비 회복에 좋은 과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수없이 탐구되고 있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빛내는데에 한몫할 수 있는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김정숙 료양소의 의료일꾼들

김정숙 료양소는 이들 료양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일들을 위해 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무원회와 공동주조관찰을 위한 결의목표의 첫 조항에 반영되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꾼들이 한결 단위적 말고 과일을 내려가 앞장서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날에

승리를 위한 결연은 경기장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우리 선수들은 승리를 약속하며 떠밀어주는 선수단생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한 경기가 끝나면 다음경기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대회의 나날 우리 팀의 중간방어수 16번 정일환 선수가 자주 읽어보곤 한 한쪽의 편지가 있다.

조국을 떠날 때 어머니가 떨리 출장길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넘겨주었다.

«... 아들이 명심하거라. 너희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기 전에 조국의 아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아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감독, 체육과학연구사 등 선수단생원들이 모여앉아 전술 토론을 벌이고 의료연구사를 비롯한 다른 생원들은 선수들의 몸상태조성을 위해 땀을 흘리며 새날을 맞이하기를 그렷던이던가.

오늘날만은 좀 쉬어도 되지 않는가고 선수들이 되지는 토로할 때에도 우리가 지새우는 이밤이 동무들의

다. 너희들에게 제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쓰러온 사랑과 온정을 안겨준 당의 믿음에 꼭 승리로 보답해야 한다.

이것이 더 바랄것 없는 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당부이다. ...»

승리를 부락하는 아버지의 편지, 이것은 비단만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

결 결 한 당부

다. 조국과 인민의 절절한 당부였다.

이번 대회에서 5개의 골을 넣고 특출한 실력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최우수선수상을 수여받은 정일환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바로 이러한 조국의 절절한 당부를 심장에 안고 용감하게 싸워이겼다.

본사기자

보답의 마음 안고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승리의 그날 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떠나 체육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모든 영예를 생각할수 없다.

천부도모 미처 몰랐던 나의 작은 제능의 깃을 귀중히 여기시어 4.25체육단 축구선수로 키워주셨으며 성과가 있을 때마다 대를 두고 진할 온정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고 국가종합팀 주장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책임감독으로까지 내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말 감지 않은 나의 생을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엮어진 추억방은 삶이다.

2년전 4월 어느날 나라를 애 바르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베풀어주신 뜨거운 은정이 어제일인양 생생하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게 선수생활을 할 때 다친 다리때문에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외국에 나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항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듯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친어머니사랑속에 나는 외국에 나가 그곳 의료일꾼들의 부러움속에 병을 고치고 돌아와 다시 축구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나는 한생을 두고 다 갖지 못한 절세의 위인의 크나

큰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억센 다리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달려며 꿈을 흘려다.

나쁜이 아닌 우리 선수들도 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활짝 펴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키우며 오늘까지 힘차게 달려올수 있었다.

정경 오늘의 승리의 금메달을 받아야 하실뿐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입니다.

지금 나의 가슴속에는 보답의 한마음만이 가득차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여 언제나 청춘의 활력에 넘쳐 나라의 축구발전에 이바지하는 보람찬 삶에 전 마음을 장그려 버치나갔었다.

책임감독 인민체육인 윤정수

소금을 쓰지 않는

국가과학원 생물분류 실험실 생물학연구소 주조성동무는 소금을 쓰지 않고 조조종균에 의하여 남새를 절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남새 절임이 잘되고 부패변질을 막을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이 적지 않다.

절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 1세지, 소금 50g, 식초 10g, 된장 10g, 비닐봉 등에 남새를 차곡차곡 넣는다. 그다음 남새 1t당 물 50l를 20분간 끓이고 거기에 가루종균 20g, 액체종균인 경우 50ml를 타서 용기에 넣고 50도에서 완전히

식용남새절임방법

에 잘게 잘린다. 그리고 남새가 물속에 떠오르지 못하게 해당 대책을 세운다.

겨울철에 남새가 얼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남새가 절여지는 시간은 여름에는 하루, 가을과 같이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절여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단 절여지면 절여진 남새가 그대로 보존되어 겨울, 봄까지 먹을수 있다.

집집스며이용으로 쓰이는 폴도프르 종균을 리용하여 절임한 겨울철에 신선한 풀을 집집스며에게 먹여 증체율을 높일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지원군 전 공군사령원 왕해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꾼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

1980년대 중엽에 나는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김일성주석의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그이께서는 평소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참으로 그이는 위대한 분이다.

대표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생원 공영봉은 기념판

우리 나라 교예 《비행가들》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2차 라마나 국제교예축제이 14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의 라마나에서 진행되었다.

축제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프랑스, 에스빠냐, 폴로비아를 비롯한 17개 나라의 이름있는 교예단체들과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지난 국제교예축제들에서 입선한 28개의 우수한 종목이 축제무대에 올랐다.

평양교예단 배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령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속에 강상태국절을 다그치고 있는 조국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일념으로 형식에 편한한 재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베이징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2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드러워져있었다.

연회에는 방황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진북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해외연락부 부부장, 호정양 중국외교부 부장장, 서용형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부사령관, 진소공 중국인민해방군 공군부사령관, 이정근 중국주재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부대표, 리희화 중국주재 중국주재 부대표와 관계부서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특별한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생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라마나 국제 교예 축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예 《비행가들》에 출연한 배우들은 공중에서 고급한 동작들과 뛰어난 재주를 훌륭하게 펼쳐놓음으로써 심사위원들과 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중중심조형》에 출연한 배우도 난도가 높은 기술동작들과 기교를 보여주어 이집트는 찬사를 받았다.

18일 이탈리아의 문화성 판리를, 라마나 시장 등 정계, 문화예술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과 폐막공연이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예 《비행가들》이 최고상인 금상이, 《중중심조형》에 등장하고 이례적인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폐막공연에서 우리 나라 교예중독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 축전참가자들과 관중은 모두 일어나 환호를 떠나갈듯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었다.

공연을 관람한 이탈리아문화부 장관은 높은 문화적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의 교예를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교예이다.

조선의 교예는 아름답고 활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준다.

마사르국제교예축제위원회 조직국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을 방문하고 교예공연을 보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지도속에 교예예술이 매우 발전하였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라마나국제교예축제이 조선 예술인들의 참가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게 되었다.

별시교예예술축전 문화회 국장은 조선의 교예는 사람들에게 높은 문화적수준과 희망을 주는 참다운 예술, 독특한 교예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교예를 보면서 행성을 교예예술에 바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배우들이 공중에서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재치있게 날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훌륭하다. 그들이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것은 당연하다.

카나다 윌레이교예단 창조 및 연출국장은 심리정을 펼쳐놓은 《비행가들》은 동작들이 세련되고 완전무결한 결구이

예술영화 《형제의 정》이 나왔다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예술영화

《형제의 정》을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 용약 떨쳐나와 삼강명절투에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2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드러워져있었다.

연회에는 방황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진북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해외연락부 부부장, 호정양 중국외교부 부장장, 서용형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부사령관, 진소공 중국인민해방군 공군부사령관, 이정근 중국주재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부대표, 리희화 중국주재 중국주재 부대표와 관계부서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특별한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생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전국부녀련합회 부부서 겸 서기처 제1서기인 송수암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이 위원회 부위원장과 목유성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귀국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이 위원회 부위원장과 목유성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민족공조는 자주통일의 추동력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온 겨레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내외반일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릴 때만 실현될수 있는 애국위업이다. 민족공조는 외세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틀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현실과 6.15 통일시대의 요구, 통일애국운동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힘으로, 추동력으로 된다. 북과 남의 외세의 반통일책동을 배격하면서 뜻과 더불어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발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 우리 겨레가 살고 공멸을 이룩해나가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래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과 노력으로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6.15 공동선언시대와 더불어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발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 우리 겨레가 살고 공멸을 이룩해나가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은 침략적이고 지배주의적외세에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나가는것이다. 분렬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방해군인 외세와의 공조는 내적이며 반통일이다. 하루빨리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적화합과 통일을 이룩할것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지향해나아가 한다. 민족공조의 확고한 실현에 우리 민족의 속기와 지혜,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해나가는 지름길이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자체의 요구이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주인이다. 민족공조를 떠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외세와의 공조를 짓부셔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된다. 6.15 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본방도로서의 민족공조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반공화국대결전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분렬과 북남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날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외세의 대조선침략책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책동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하고 전쟁위험은 갈수록 짙어지고있다.

외세의 반통일, 대결전쟁공세를 짓부시는 힘은 민족공조에 있다. 북과 남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조성된 단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수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과제이다. 현실은 해

내외의 온 겨레를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로 부르짖고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온 겨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간직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아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특색있게 기여하며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지혜를 합쳐서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배치되는 사대와 외세존, 외세와의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적인 외세의 존재를 짓부셔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곧 반통일대결공조, 북침전쟁공조이며 그것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의 불기름을 불어넣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합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외세의 침략책동과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한다. 특정한 단계나 개별적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그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진정으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조진세력들이 외세의 침략과 보수매국의 사대매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력기할 때에야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짓부셔 버릴수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공동의 애국위업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이 애국에 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조

를 실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최대의 애국으로 되는 조국통일을 위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은 민족주의 어질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민족공조의 위력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려나아가야 한다.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 대화를 해도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대화를 하고 협력과 교류, 패왕을 해도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도 지향시켜야 한다.

북남선언들의 고수, 리행은 곧 민족공조의 실현과정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대한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맞게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아가야 한다. 과거가 어떠한지, 어떤 사상과 제도에서 살건, 정견과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민족공조의 성스러운 대오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조진동료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한마음을 가리에 조국통일을 지향하여 애국의 뜻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춰나갈 때 조성된 단국이 타개되고 민족공조가 이루어져 자주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온 민족은 안락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우선해지면 질수록, 정세가 엄격해지면 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거국적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엄 일 규

대화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

남조선군부호전광풍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연합공중헌원을 조선반도서부상공에서 광범적으로 벌려왔다.

피괴근부의 주도하에 감행된 이번 혼련에는 《F-15K》, 《KF-16》, 《F-4E》 전투기를 비롯한 피괴공군부대와 미제의 《F-16》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 등 50여대의 각종 전정장비들이 동원되었다. 그 누구의 《기습도발》에 대규모공격전대로 맞서 공중헌원을 벌리고 지상타격목표에 대한 전술공격을 가하는것으로 감행된 이번 혼련은 그야말로 실질을 방불케 하는 북침전쟁도발연습이다. 호전광풍이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틀어쥐고있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에 빠뜨리는 범적행위이다.

오늘 북남사이엔 절실히 필요한것은 대화의 분위기이다. 대화의 분위기에 대한 적대적인 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는 반역행위일뿐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연합공중헌원습을 강력히 반대구완한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호전광풍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위협천한 북침불장난공세를 광범적으로 벌림으로써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파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공세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금 우리의 주동적인 제안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온 민족과 내외여론의 지지호응을 불러일으켰고있다. 그런데 피괴호전광풍은 이런 긍정적분위기를 깨며 가장 침에한 조선시해상공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이다.

문제는 내외호전광풍이 북침불장난을 우리와 금강산관방제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기하고 이미 북남사이엔 합의된 휴전기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적십자회와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때에 감행한것이냐. 사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후

림장》이니, 《고려》니 하는 부당한 구실로 우리가 제기한 관광재개회담을 연기시킨 남조선당국의 속심은 무엇이 무엇인가는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최근 서해에서 《해상도발도발공중도발》을 더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허튼 여론을 물려왔다. 그런 속에 우리가 제기한 회담날자인 15일에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연합공중헌원습을 전진하였다. 이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서 《수후림장》이니, 《고려》니 하며 시간을 끈 남조선당국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최근 《주적》소동에 광범하는 피괴호전광풍이 이번 연합공중헌원습을 주도하고 미공군 354비행단 18대대가까지 알래스카에서 끌어들이며 대공기동을 벌린것이다. 미공군 354비행단 18대대로 말하면 《주적》의 전술 및 기동을 연구적용하여 전쟁경계에 참가하는 혼련대상이다. 이것은 이번 호전광풍이 북침실질연습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호전광풍이 조선반도서부상공에서 있었던것을 빼고 《기습도발》을 운운하며 이번 혼련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이번 불장난으로써 남조선통치자들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생각은 꼬물꼬물 없었으며 오직 외세와 함께 우리를 압살할 범적침략공세를 폈고있다는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해치려 하는자들은 용납치 않는다.

우리가 수십년간 허리머를 졸라매고 자위적국방력을 축적하는데 강화해온것은 바로 반공화국침략세력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통치자들은 여기서서야 야망을 버려야 하며 경계당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협력의 손을 뿌리치고 외세와 합작이 되어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에 미쳐달려다가는 수처스름과 괴멸을 면할수 없다.

송영석

여지없이 드러난 북남관계파탄기도

겨레의 지향과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남사이엔 여지없이 대결과 긴장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는 《대북공조일변도정책》으로 북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번도 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정세를 파고 뺏겨나오며 물러놓은 《외교안보의 전전편》과 《대북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개선의 의지가 꼬물꼬물이라도 있다면 민심의 요구대로 극악한 대결팽신자들을 장판차리에서 때고 《대북정책》 전환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자세와 림장은 과연 어떤가.

얼마전 청와대의 한 고위인물은 북에 《대북정책변화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북이 《천안》호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동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교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잡아챘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관계를 완전히 봉지막산한 반민족적범적행위 위해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이며 북남사이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모처럼 조성되고있는 오늘까지도 동족과의 대결지세를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통일부장관 현인택과 국방부장관 김태영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 실현의 맥 안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쳐달려나오는 자들이다. 시대착오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고안해내고 활기있게 진행되던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파탄시키며 북남관계약화의 시초를 엮었다. 그 무슨 《급진사태》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니 하는 망발들을 공공연히 늘어놓고 이른바 《비상통치계획》, 《통일대결택선》과 같은 극히 도발적인 북침모략본들을 꾸며내었고, 제제대결을 격화시키다 못해 《신세라격》 폭언까지 제치며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 장본인들도 다름아닌 현인택, 김태영영도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얼마전 도이원단을 행각한 현인택영도 그 누구의 《통일강령》에 대해 황실수설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자들도 《통일을 준비할수 있을것》이라고 떠벌이었다. 지난 5일에도 《국회》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나갈것》이라느니, 《앞으로도 북의 근본적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것》이라느니 하는파위의 나발을 붙여대며 대결팽신자로서의 본색을 날남이 드러냈다.

김태영영도 역시 그에 뒤질세라 반통일대결광풍의 《솔씨》를 보이려고였다. 피괴근내에서 《주적》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고취하는 이자는 최근에도 모략적인 합선철물사건을 집요하게 들고일어치면서 외세와 야합하

여 북침전쟁연습들을 매일같이 제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가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북침당사태》에 대해 격렬한 타성적인 《화강역제정쟁위원회》 제도로화에 맞도장을 누른역도로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대북침략전제》를 공언해나갔다. 특정한 단계나 개별적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그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진정으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조진세력들이 외세의 침략과 보수매국의 사대매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력기할 때에야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짓부셔 버릴수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공동의 애국위업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이 애국에 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조

를 실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최대의 애국으로 되는 조국통일을 위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은 민족주의 어질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민족공조의 위력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려나아가야 한다.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 대화를 해도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대화를 하고 협력과 교류, 패왕을 해도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도 지향시켜야 한다.

북남선언들의 고수, 리행은 곧 민족공조의 실현과정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대한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맞게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아가야 한다. 과거가 어떠한지, 어떤 사상과 제도에서 살건, 정견과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민족공조의 성스러운 대오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조진동료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한마음을 가리에 조국통일을 지향하여 애국의 뜻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춰나갈 때 조성된 단국이 타개되고 민족공조가 이루어져 자주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온 민족은 안락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우선해지면 질수록, 정세가 엄격해지면 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거국적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엄 일 규

련방제 통일방안을 받아안던 나날에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69 (1980)년 10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신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 일대 사건사변이었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아가야 한다. 과거가 어떠한지, 어떤 사상과 제도에서 살건, 정견과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민족공조의 성스러운 대오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조진동료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한마음을 가리에 조국통일을 지향하여 애국의 뜻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춰나갈 때 조성된 단국이 타개되고 민족공조가 이루어져 자주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당시 온 민족의 양양된 조국통일운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특히 1979년 10월 민주항쟁과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급격히 강화되자 반통일세력은 의지도 없는 그 누구의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에 대해 못매 북남대결을 고취하

다 못매 《통일불가능론》까지 들고나오면서 겨레의 조국통일 투쟁의 앞길을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있던 나라도 이 방안을 자자구구 연구하면서 흥분과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 방안에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었던것이다.

(이 방안이야말로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유일할 방도이다.)

이제야말로 나의 가슴은 새겨져 부풀어올랐다.

그러서 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마다 평양방공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통일강령, 통일외교정책을 밝힌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이 가당아야 할 목표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당시 군산에서 대학교수로

지지찬동하는 남녘의 민심을 막을수 없었다.

지나온 30년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의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야말로 예제도 오늘도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는 유일할 방안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련방방안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오늘날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대결전쟁책동에 말미암아 엄청난 타격과 난관에 부딪히고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온 겨레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서 잊혀지지 않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전도는 양양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 통선변영은 통일강령을 일떠세우려는 경여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가는 길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하는것이 나의 굳은 결심이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리우갑

기만적인 고용시책을 비난

남조선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1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낭독되었다.

회견문은 리명박 《정부》가 앞으로 2년간 7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것은 오히려 저들에게 청년실업해결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반증

실천련대에 대한 악랄한 탄압책동

서늘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19일 악랄한 《보안법》에 걸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조직발전위원장 강진규와 이적 핵심성원인정은 최한옥, 김자경, 송현아의 집들을 강제수색하는 파조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의 《리적》활동 근거를 찾아보려고 이런 탄압수동을 일으켰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웰남공산당 총비서를 작별 방문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뎠고 신대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웰남공산당 지도부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표시하는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말레이시아국왕에게 정중히 이라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꾸바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마르코 로드리게스 소스마 부상을 당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표단을 외무성대표단이 23일 귀국하였다.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민해방군 총정서부 신장부 부부장 리국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이 22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민해방군 총정서부 신장부 부부장 리국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이 22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